

## 용기의 구성개념 탐색: 한국 대학생의 암묵이론\*

허 윤 희

임 성 문†

충북대학교

용기는 최근까지도 구성개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여 아직 합의된 정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용기에 대한 암묵이론을 조사하여 용기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239명의 대학생에게 용기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여 반응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3,859개의 원자료가 얻어졌고, 이는 내용분석을 통해 437개 대표항목으로 축소되었고 10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어진 437개 항목을 9점 척도화하여 286명의 대학생에게 조사한 후 적절성 평가를 통해 211개의 항목을 산출하였다. 이 항목의 반응들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솔성-꿋꿋함, 이타성-위험감수, 소신-당당함, 도전정신의 4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용기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 즉 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하는가? 고상한 목적이 필수적인가? 안정적인 특성인가 또는 가변적인 행동인가? 를 연구자가 개발한 삽화와 문항을 사용하여 알아보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용기가 두려움을 수반할 수도 또는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고상한 목적을 포함하는 것, 행동보다는 특성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서구의 선행연구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기, 암묵이론, 용기의 구성개념

\* 이 연구는 임성문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된 2011년도 허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성봉로 410

Tel: 043-261-2190, E-mail: sungmoon@chungbuk.ac.kr

용기는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칭송받아온 덕목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용기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용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초기 연구들은 주로 용기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었고 용기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생리적 반응을 이용하였다(Cox, Hallam, O'Connor, & Rachman, 1983; McMillan & Rachman, 1987, 1988; O'Connor, Hallam, & Rachman, 1985). 이후 심리학 분야에서 Asarian(1981), 간호학 분야에서 Hasse(1985, 1987)와 Finfgeld(1995)에 의해 용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행해졌다. 아주 최근에서야 비로소 불안, 성격 유형 등 다른 변인들과 용기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었다(Muris, 2009; Muris, Mayer, & Schubert, 2010). 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적절한 심리 측정적 방법을 적용한 용기 척도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차이로 인해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 공동체의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태로 척도가 개발되어 왔다(Lopez, 2007; Rate, Clarke, Lindsay, & Sternberg, 2007).

Schmidt와 Koselka(2000)는 Rachman(1984)의 정의에 기초하여 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Rachman(1984)은 용기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거나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31문항의 용기 척도를 개발한 Woodard(2004)는 용기를 ‘자신의 사용자원을 초과하는 위협이라고 지각되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고상하거나 선하거나 실제적인 이유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Woodard(2004)는

Schmidt와 Koselka(2000)와 유사하게 두려움을 용기의 선행조건으로 보았는데, 더 나아가 고상한 목적도 용기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고상한 목적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어리석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Woodard와 Pury(2007)에 이르러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꿔 이전에 개발한 척도를 새롭게 개정하였다. 나아가 Norton과 Weiss(2009)는 Woodard와 Pury(2007)의 척도를 비판하고 용기의 주관성을 포함하는 Rachman(1978)의 정의를 토대로 용기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Woodard와 Pury(2007)에서는 특정한 상황들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용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Norton과 Weiss(2009)는 특정한 상황들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역시 개인의 신념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가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편, VIA(Vals in Action)분류체계를 개발한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용기란 ‘외적 또는 내적 반대에 직면해서도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의지의 발현에 관련된 정서적 강점으로서,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의 성격강점들을 통해 나타나는 덕성’이라 정의함으로서, 용기를 성격특질에 가까운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용기의 정의에 대한 연구자간 차이는 용기에 대한 현시점의 세 가지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용기가 두려움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포함하지 않는가이다. Schmidt와 Koselka(2000) 및 Norton과 Weiss(2009)는 용기란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하는 것으로 용기는 두려움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보는 반면, Woodard와 Pury

(2007)는 용기가 두려움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의하여 두려움을 포함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은 용기가 고상한 혹은 도덕적으로 선한 목표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가이다. Woodard와 Pury(2007)는 용기가 고상한 혹은 도덕적 목표를 포함한다고 보는 반면, Schmidt와 Kosekka(2000) 그리고 Norton과 Weiss(2009)는 용기가 고상한 혹은 도덕적 목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세 번째 쟁점은 용기가 발생 시점과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 성격적 특성인가 아니면 비교적 덜 일관성을 갖는 행동적 특성인가이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용기를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하지만, Woodard와 Pury(2007)는 용기를 행동으로 간주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용기에 대한 연구 공동체의 합의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첨예한 쟁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후속 연구자는 용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선행 연구자의 정의들 중 하나를 상정해야 하는가? 용기를 정의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 가지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묵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암묵이론(implicit theory)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지적 구조를 의미한다. 암묵이론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에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Sternberg, 1985; Sternberg, Conway, Ketron, & Bernstein, 1981). 따라서 암묵이론 접근에서는 질문, 추론, 행동특성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구성개념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된 구성개념은 명시적 이론의 개념적 틀과 기초를 제공한다(Sternberg,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묵이론 접근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용기에 대한 구성개념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용기의 암묵이론을 알아보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O'Byrne, Lopez 와 Peterson(2000), Rasmussen, O'Byrne, Lopez 와 Peterson(2002)은 사람들에게 용기란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그 응답들을 분류한 바 있다. 이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용기가 희생하기, 위협, 두려움, 도전에 직면하기, 장애물을 극복하기, 자신이 믿는 것을 고수하는 것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후 Rate 등(2007)은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정교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개방형 설문뿐만 아니라 카드 분류 과제, 삽화 설문, 요인분석, 군집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용기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용기는 정서와 외부환경에 대한 자기초점적 반응, 비신체적/사회 지향적 행동-고상한 내적 동기, 이타적 희생/위험-고상한 외적 동기의 세 가지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te 등(2007)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용기가 위험, 두려움, 고상한 목표, 자의성의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Rate 등(2007)은 단순 내용분석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음에도 한 가지 방법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네 개의 연구로 구성된 Rate 등(2007)에서 연구 1, 2, 3을 통해 위험, 두려움, 고상한 목적이 일관되게 도출됨으로 이 세 개를 용기의 구성요소로 제안했는데, 연구 4에서 갑작스럽게 자의성이라는 요소를 추가시킨 것이다. 이렇게 연구 최종 단계에서 자의성 요소를 추가시킨 이유를 Rate 등(2007)은 미주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얻어진 자

료들을 내용분석하기 위해 Waker와 Hennig(2004)의 판단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실수로 제외(erroneously dropped)되었다고 하였다(Rate et al., 2007, p.98). Walker와 Hennig(2004)의 판단 규칙은 개방적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이 가능한 항목으로 정리할 때 적용한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독립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혼합구절은 각각 독립된 구절로 분리하고, 특질들은 가능하다면 행동으로 바꾸며, 문장 내에 존재하는 수식어는 제외시킨다. Rate 등(2007)은 바로 수식어를 제외하는 이 과정에서 자의성을 의미하는 수식어를 모두 제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te 등(2007)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 즉 Rate 등(2007)과 달리 개방적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하나의 반응이 하나의 용기 특징만을 기술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와 응답자의 반응이 가지는 의미를 잃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원 반응을 분석단위로 하는 절차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근래 문화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두 문화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개념이더라도 각 문화는 저마다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다른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조남국, 1997). 이는 암묵이론에 문화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구성개념을 주변 환경과 독립적인 것(context free)으로 보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구성개념이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being embedded within culture)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Dweck, Chiu, & Hong, 1995). 이에 따라 암묵이론을 통해 연구된 사랑(Barnes & Sternberg, 1997; Fehr, 1988), 친혜(Holliday & Chandler, 1986; Sternberg, 1985),

창의성(성은현 등, 2008; Sternberg, 1985) 등의 구성개념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Rasmussen 등(2002)은 그리스와 인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 대학생들의 경우 능력, 성격, 분명한 입장 취하기가, 인도 대학생들의 경우 내적인 힘, 도전에 직면하고 극복하기, 신념옹호하기, 위험감수하기 등이 각각 용기의 주제라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기의 암묵이론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문화에서의 용기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고 서구의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독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암묵이론을 사용하여 용기의 내용과 구조를 확인하고 용기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용기에 대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집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용기의 범주들을 확인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달리한 자료로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용기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나아가 용기 구성개념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얻고자 한다.

## 연구 1

### 방법

### 조사대상

충청북도 청주와 충주에 소재한 두 개 대학에서 각 165명과 74명 총 239명(남 97명, 여 142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 $SD=2.22$ )이었고, 학년 분포는 1학년 121명, 2학년 31명, 3학년 43명, 4학년 44명이었다.

###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둘째와 셋째 주에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교양과목 수업 중 실시되었다. 대학생의 용기에 대한 암묵이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즉 참가자들은 설문에 응하기 전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도록 지시받은 후 그 사람의 특징을 최소 10개 이상 최대 20개 까지 기술하도록 지시 받았다. 이 때 사용한 반응 기록지는 총 20개의 칸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칸에는 하나의 특징만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여러 특징들을 한 문장에 함께 기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Rate 등(2007)의 연구 방법과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20~25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Rate 등(2007)의 연구와 달리 참가자들이 기술한 문장들을 별도의 수정작업 없이 그대로 내용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우선 중복되는 내용을 가진 항목들끼리 묶은 후 그 중에서 대표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후 의미나 내용면에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시키고, 좀 더 큰 집단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

구자들의 항목분류와 대표항목 선정 초안을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6인으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세 차례 검토하였다. 작업의 방식은 독립적으로 실시한 내용분석을 상호 비교하여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이 후 연구자들은 수정된 분류자료로 다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술한 소집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었고 부분 수정을 거쳐 최종 분석 결과를 산출하였다.

### 결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용기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3859개의 항목이 수집되었다. 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350개의 항목(예: 'Lock & Lock 공장의 사장은 용기가 많다', '힘이 세다' 등)은 배제되었다. 내용분석 결과 437개의 대표항목이 추출되었고, 이 항목들을 대상으로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각 범주의 명칭과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437개의 대표항목들은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범주는 소신, 진취성, 자기희생, 강인성, 자신감, 정의, 대범함, 솔직성, 호방함, 기타로 명명되었다. 소신 범주는 소신대로 행동하기, 의사표현, 강한 사람 상대하기를 포함하는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진취성 범주는 적극성, 도전정신, 리더십을 포함하는 6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자기희생 범주는 구해주기, 도와주기, 나눠주기를 포함하는 8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강인성 범주는 극복, 견디기, 집념을 포함하는 7개의 하위범주로

표 1. 용기의 범주 및 범주별 대표 항목

범주	하위범주	대표항목	n <sup>a</sup>	n <sup>b</sup>	%
1 소신	소신대로 행동하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41	271	
	의사표현	내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를 때에도 당당히 이야기한다	13	145	
	강한사람 상대하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자일지라도 말한다	10	115	680
	주관	주관이 뚜렷하다	6	57	(19.4)
	쓴소리하기	잘못된 일에 쓴소리를 한다	7	54	
2 전취성	타인 의식하지 않기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4	38	
	적극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1	313	
	도전정신	도전 정신이 강하다	21	168	
	리더십	리더십이 있다	3	70	646
	자립성	자립심이 강하다	7	62	(18.4)
3 자기 회생	추진력	계획대로 실천한다	2	22	
	개방성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융통성이 있고 사고가 개방적이다	1	11	
	구해주기	위협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	7	181	
	도와주기	다른 사람을 돋는다	13	94	
	나눠주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	3	68	
4 개인성	타인을 위함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	7	67	606
	타인 위한 회생	다른 사람을 위해 회생한다	2	62	(17.3)
	사랑하는 사람 위한 회생	가족을 위해 회생한다	2	57	
	나라 위한 회생	여러 위인들처럼 나라를 위해 회생한다	4	51	
	꺼리는 일하기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해서 한다	1	26	
5 자신감	극복	역경을 극복해 나간다	17	129	
	견디기	힘든 일을 참는다	20	102	
	집념	한 번 실패해도 여러 번 도전해서 이루어 낸다	9	94	
	맞서기	시련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맞선다	7	55	422
	긍정성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산다	3	26	(12.0)
6 정의	활력	힘들어도 표정이 밝다	2	7	
	강함	강하다	3	9	
	당당함	당당하다	12	95	
	자신감	자신감이 차 있다	5	80	307
	많은 사람 앞에 서기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5	78	(8.7)
7 대범함	자기표현	자신의 기와 재능을 숨기지 않고 발산한다	8	54	
	옳은 일 하기	약자를 보호한다	21	80	
	불의에 맞서기	불의에 맞서 싸운다	6	72	237
	정의의를 위한 위험 감수	범인을 잡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다	8	51	(6.8)
	옳지 못한 일 바로잡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한다	4	34	
8 솔직성	과감성	과감하게 행동한다	16	98	
	두려움/겁/무서움 없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21	93	206
	대답함/매기/포부	대답하다	1	15	(5.9)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	15	78	
	인정하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한다	12	56	156
9 호방함	타인의 잘못 말해주기	친구나 가족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준다	4	22	(4.4)
	외향성	외향적이다	6	57	
	포용력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	2	30	122
	먼저 다가가기	다투고 난 후에 먼저 사과한다	1	21	(3.5)
	호탕함	뒤끝이 없다	6	14	
10 기타			47	126	126
				437	3509 (3.6)
					100

주. n<sup>a</sup>는 437개로 압축한 전체항목 중 해당하위범주에 분류된 항목수, n<sup>b</sup>는 3509개 원자료 전체 항목 중 해당하위범주에 분류된 항목수, %는 3509개 원자료 전체 항목 중 각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

구성된다. 자신감 범주는 당당함, 자신감, 자기표현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정의 범주는 옳은 일 하기, 불의에 맞서기, 정의를 위한 위험감수를 포함하는 4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대범함 범주는 과감성을 포함하는 3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솔직성 범주는 표현하기를 포함하는 3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호방함 범주는 외향성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기타 범주는 내용상 어떤 범주에도 분류되지 않는 47개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소신, 진취성, 자기희생 범주는 각각 19.4%, 18.4%, 17.3%로 가장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 연구 2

### 방 법

#### 조사대상

충청북도 청주에 소재한 한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 있는 14명을 제외한 286명(남 157명, 여 129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 $SD=2.36$ )이었고, 학년 분포는 1학년 49명, 2학년 61명, 3학년 104명, 4학년 72명이었다.

####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셋째와 넷째 주에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교양과목 수업 중에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1에

서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된 437개의 항목들에 대해 각 항목의 내용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9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9점=매우 그렇다)상에 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참가자들은 용기 구성개념에 관한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설문은 두려움에 관한 쟁점과 고상한 목적에 관한 쟁점을 검증하는 각 3개씩의 문항과 행동-특성 쟁점을 검증하는 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두려움에 관한 쟁점을 검증하는 각 문항은 한 개의 삽화(vignette)와 이 삽화와 연결된 세 개의 선택지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을 예시하면, 용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대표적인 용기 있는 행동(곧 지하철이 들어올 상황에서 철로로 뛰어내려 지하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한 행동)을 한 두 인물(A와 B)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삽화가 먼저 제시되는데, 1인(A)은 위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되어 있고, 다른 1인(B)은 위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를 무릅쓰고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이 때 제시되는 질문은 ‘A와 B 중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선택하시오. 두 사람 다 용기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 선택해도 됩니다’이고, 보기는 ① A, ② B, ③ A와 B이다. 참가자가 ①을 선택하면 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②를 선택하면 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③을 선택하면 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고상한 목적에 관한 쟁점을 검증하는 문항은 두려움에 관한 쟁점을 검증하는 문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삽화에서 대표

적인 용기 있는 행동을 한 2인(A와 B)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상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A와 고상한 목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B의 진술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두려움에 관한 쟁점을 검증하는 문항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질문과 보기가 제시된다. 따라서 참가자가 ①을 선택하면 용기는 고상한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 되고, ②를 선택하면 용기는 고상한 목적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되고, ③을 선택하면 용기는 고상한 목적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 된다. 두려움에 관한 쟁점과 고상한 목적에 관한 쟁점을 검증하는 설문은 각자 삽화를 포함하는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신체적, 도덕적, 심리적 용기의 세 가지 유형을 반영하여 설문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문항의 삽화에 반영된 신체적 용기는 신체적 위험에 직면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문항의 삽화에 반영된 도덕적 용기는 피해를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이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문항의 삽화에 반영된 심리적 용기는 심리적 안정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기는 특성인가 또는 행동인가의 쟁점을 검증하는 문항은 시간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두 문항(예: 1년 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던 철수는, 다음번에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 것이다)과 상황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두 문항(예: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던 영철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도 뛰어들 것이다)의 총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

항을 읽고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9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9점=매우 그렇다)상에 표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 1의 내용분석에 사용된 437개의 대표항목들의 리커트 척도 점수들의 평균점수 보다 큰 자연수 점수를 얻은 항목들의 점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용기의 구성개념에 대한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응답빈도 간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 1에서 얻어진 437개의 항목에 대한 9점 리커트 척도의 설문결과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5.71( $SD=1.13$ )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절차를 준용하여 평균 점수보다 큰 자연수인 6점 이상의 211개 항목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회전은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44개이었으나, 누적 설명량, 스크리검사,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4요인의 각 고유치는 60.64, 14.56, 6.64, 4.57이었고, 전체 변량의 42.1%를 설명하였다. 형태계수 행렬에서 요인 부하량을 .50이상으로 제한하고, 다른 요인에도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6개의 항목들을 제외하였을 때 94개 항목이 4개의 요인에 나눠졌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간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산

표 2. 요인분석결과

항목번호	요인	요인부하량			
[요인 1]					
42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b>0.80</b>	0.07	0.13	0.10
41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b>0.78</b>	0.03	0.24	0.02
196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	<b>0.76</b>	0.16	-0.04	-0.00
344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b>0.76</b>	0.02	0.10	0.09
410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다	<b>0.75</b>	0.10	0.15	0.09
83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b>0.74</b>	-0.17	0.15	-0.05
171	실패를 통해 배운다	<b>0.74</b>	0.11	0.10	0.13
215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b>0.73</b>	0.16	-0.08	0.14
415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솔직히 말한다	<b>0.73</b>	0.06	0.15	0.11
158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한다	<b>0.72</b>	0.07	0.18	0.10
9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b>0.70</b>	-0.03	0.36	-0.11
421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극복한다	<b>0.70</b>	0.11	0.02	0.19
167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b>0.70</b>	-0.04	0.19	-0.08
436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얘기한다	<b>0.70</b>	0.19	0.32	0.00
252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한다	<b>0.68</b>	0.06	0.11	0.16
123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b>0.66</b>	0.04	0.11	0.02
432	소신있게 행동한다	<b>0.66</b>	-0.01	0.09	0.35
383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b>0.65</b>	0.01	-0.08	0.24
125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다	<b>0.65</b>	0.03	0.13	0.05
336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산다	<b>0.65</b>	0.06	0.03	0.14
168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b>0.64</b>	0.28	0.13	0.05
164	충고를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한다	<b>0.64</b>	-0.01	0.30	-0.10
77	뚜렷한 꿈과 목표가 있다	<b>0.63</b>	-0.12	-0.07	0.24
16	힘들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b>0.63</b>	-0.05	-0.04	0.09
152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노력한다	<b>0.63</b>	0.05	0.28	-0.05
145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스스로 잘 해 나간다	<b>0.62</b>	0.08	0.06	0.25
260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b>0.62</b>	0.26	0.03	0.10
161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산다	<b>0.60</b>	0.12	0.07	0.17
422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도전한다	<b>0.59</b>	0.23	0.01	0.38
226	불리한 상황에서도 끗끗하게 할 일을 한다	<b>0.59</b>	0.12	0.17	0.31
419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	<b>0.59</b>	0.05	0.12	0.16
28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b>0.58</b>	0.11	0.02	0.15
213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b>0.58</b>	0.03	0.21	0.16
377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b>0.57</b>	0.13	-0.11	0.35

표 2. 요인분석결과

(계속 1)

항목번호	요인	요인부하량			
<b>[요인 1]</b>					
289	자신의 단점이나 허물, 혹은 한계를 혼怯히 인정한다	<b>0.57</b>	0.19	0.14	0.17
395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b>0.56</b>	0.17	0.37	0.10
390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	<b>0.56</b>	-0.16	0.02	0.34
396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	<b>0.56</b>	0.06	0.12	0.46
409	시련이 닥쳐도 꾀하지 않고 맞선다	<b>0.54</b>	0.39	0.05	0.30
300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겁을 수사에 당당하고 소신있게 임하여 결백을 인정받는다	<b>0.53</b>	0.20	0.01	0.29
398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b>0.53</b>	0.22	0.26	0.34
162	한 번 실패해도 여러 번 도전해서 이루어 낸다	<b>0.53</b>	0.27	0.15	0.19
408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b>0.53</b>	0.40	0.12	0.26
110	자기 자신을 낫출 줄 안다	<b>0.53</b>	-0.09	0.32	0.03
204	결단력이 있다	<b>0.52</b>	0.11	0.17	0.21
389	용기있는 행동에 비난을 받아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b>0.52</b>	0.21	0.02	0.10
399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	<b>0.51</b>	0.17	0.13	0.35
362	위험한 상황에서도 점착하다	<b>0.50</b>	0.05	-0.09	0.35
<b>[요인 2]</b>					
339	위험을 무릅 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	0.02	<b>0.80</b>	0.04	0.14
404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	0.05	<b>0.79</b>	0.05	0.09
314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듦다	-0.03	<b>0.78</b>	-0.08	0.18
288	범인을 잡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다	-0.01	<b>0.76</b>	0.07	0.37
102	지하철 철로에 뛰어 들어 다른 사람을 구한다	0.03	<b>0.73</b>	0.27	-0.11
391	여러 위인들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	0.19	<b>0.70</b>	-0.08	0.08
92	자신이 위험해 질 수 있는데도 남을 돋는다	0.06	<b>0.69</b>	0.39	-0.03
420	강도나 소매치기를 뒤쫓아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다	0.06	<b>0.68</b>	0.07	0.30
286	깡패에게 맞선다	0.01	<b>0.68</b>	0.11	0.25
101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돋는다	0.19	<b>0.68</b>	0.25	-0.08
108	흉기에 의한 위협도 견뎌낸다	-0.12	<b>0.68</b>	0.28	0.16
263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 듦다	-0.13	<b>0.67</b>	0.18	0.14
182	납치범과 대화를 시도하여 설득한다	0.06	<b>0.65</b>	0.24	0.11
173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	0.23	<b>0.65</b>	0.02	0.03
223	죽음이나 위험을 무릅 쓰고 취재를 한다	0.11	<b>0.63</b>	0.07	0.04
109	불의에 맞서 싸운다	0.03	<b>0.62</b>	0.41	0.11
210	강도, 납치 등을 당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준다	0.20	<b>0.61</b>	0.06	0.16
129	강도를 때려 잡는다	-0.06	<b>0.60</b>	0.12	0.17
282	위험한 일에 앞장선다	-0.07	<b>0.59</b>	0.09	0.24

표 2. 요인분석결과

(계속 2)

항목번호	요인	요인부하량			
<b>{요인 2}</b>					
41	적들과 맞서 싸운다	0.06	<b>0.59</b>	0.25	0.09
239	자신에게 피해가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벌벗고 나선다	0.33	<b>0.56</b>	0.20	0.01
181	자신에게 위험이나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	0.19	<b>0.55</b>	0.27	0.07
367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0.29	<b>0.55</b>	0.00	0.01
307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0.26	<b>0.55</b>	0.13	0.35
15	오토바이 날치기를 목격하고 끝까지 따라간다	-0.05	<b>0.53</b>	0.36	0.13
304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0.30	<b>0.51</b>	0.01	0.39
<b>{요인 3}</b>					
18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자일지라도 말한다	0.07	0.22	<b>0.71</b>	0.14
8	나보다 강한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할 때에도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다	0.18	0.21	<b>0.71</b>	0.08
20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대한다	0.11	0.16	<b>0.68</b>	0.23
17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 한다	0.28	0.03	<b>0.63</b>	0.12
60	불의를 보면 고치려고 나선다	0.17	0.36	<b>0.63</b>	0.11
91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진해서 나선다	0.19	0.44	<b>0.62</b>	0.16
50	자기보다 강하거나 잘난 상대에게도 주눅들지 않는다	0.13	0.24	<b>0.62</b>	0.40
61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다	0.17	0.34	<b>0.57</b>	0.05
67	잘 못하는 일이지만 해보겠다고 선뜻 나선다	0.14	0.26	<b>0.55</b>	0.16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질문한다	0.44	-0.00	<b>0.54</b>	-0.15
94	수업 시간에 자발적으로 발표한다	0.14	0.31	<b>0.54</b>	0.22
<b>{요인 4}</b>					
306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0.33	0.07	0.14	<b>0.60</b>
287	도전정신이 강하다	0.19	0.34	0.12	<b>0.60</b>
332	대표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0.18	0.26	0.28	<b>0.58</b>
272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0.25	0.24	0.09	<b>0.57</b>
309	남들이 시도해 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한다	0.14	0.25	0.28	<b>0.56</b>
433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0.28	0.32	0.05	<b>0.55</b>
279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망설이지 않고 추진한다	0.24	0.16	0.13	<b>0.55</b>
29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0.23	0.24	0.19	<b>0.51</b>
402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해결해 준다	0.26	0.26	0.17	<b>0.50</b>

다’, ‘용기 있는 행동에 비난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요인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과 내적 혹은 외적인 어려

움을 경험할 때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는 Rate 등(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세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인 ‘정서와 외부 환경에 대한 자기 초점적 반응’과 유사

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진술성-꿋꿋함’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위험을 무릎 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 ‘깡패에게 맞선다’, ‘불의에 맞서 싸운다’, ‘자신에게 위험이나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 등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타인을 위한 위험감수 행동에 대한 내용인데 Rate 등(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세 요인 중 ‘이타적 희생/위험-외적 동기’ 요인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타성-위험감수’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자일지라도 말한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한다’, ‘자기보다 강하거나 질난 상대에게도 주눅들지 않는다’,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요인은 당당한 태도와 의사표현 행동을 포함하는데 특히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Rate 등(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세요인 중 두 번째 요인인 ‘비신체적/사회지향적 행동-내적 동기’ 요인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신-당당함’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정신이 강하다’, ‘남들이 시도해 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 한다’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 요인은 주로 도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Rate 등(2007)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도전정신’이라고 명명하였다.

두려움에 관한 용기의 쟁점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응답과 두려움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

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문항별로 선택지의 응답빈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 1(신체적 용기)에서 선택지 3(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문항 2(도덕적 용기)와 문항 3(심리적 용기)에서는 선택지 2(용기는 두려움을 포함하는 것) 응답과 선택지 3(두려움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고, 선택지 2와 선택지 3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상한 목적에 관한 용기의 쟁점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용기는 고상한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월등하게 많았다. 문항별로 선택지의 응답빈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문항 1, 2, 3(신체적, 도덕적, 심리적 용기) 모두에서 선택지 2(용기는 고상한 목적을 포함하는 것)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용기는 특성인가 또는 행동인가의 쟁점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용기는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안정성을 묻는 문항들의 척도점수 평균은 6.86(SD=1.56),

표 3. 요인간 상호상관관계

	1	2	3	4
1. 요인 1	-			
2. 요인 2	.360**	-		
3. 요인 3	.452**	.541**	-	
4. 요인 4	.579**	.538**	.513**	-

\*\*  $p < .01$

표 4. 문항별 선택지 응답빈도의 차이검증

쟁점	응답빈도			$\chi^2$	$\chi^2$	$\chi^2$
	선택지 1	선택지 2	선택지 3			
두려움 1	55	99	132	12.57**	31.71***	4.71
두려움 2	68	115	103	12.07**	7.16*	.66
두려움 3	71	102	113	5.56	9.59*	.56
고상한 목적 1	13	230	43	193.78***	16.07***	128.09***
고상한 목적 2	13	227	46	190.82***	18.46***	120.00***
고상한 목적 3	16	237	33	193.47***	5.90*	154.13***

주 1.  $\chi^2$  검증은 두 선택지의 응답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며, 유의수준은 다중비교에 대한 Bonferroni 교정을 수행하였음.

주 2. 두려움과 고상한 목적 뒤에 붙은 숫자는 문항번호인 동시에 용기의 유형임. 숫자 1은 신체적 용기, 2는 도덕적 용기, 3은 심리적 용기임.

상황적 안정성을 묻는 문항들의 평균은 5.29 ( $SD=1.81$ ), 시간적 안정성과 상황적 안정성을 합한 전체 문항의 평균은 6.08( $SD=1.47$ )이었다. 이는 9점에 근접할수록 안정적인 특성임을 의하는 9점 리커트 척도에서 척도의 중간 값인 5점보다 높은 평균점수로, 용기를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행동으로 여기기보다 시간적, 상황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에 가까운 개념이라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기의 구성개념 및 용기의 구성개념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차례대로 요약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연구 1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

집한 3,509개의 항목들이 소신, 진취성, 자기희생, 강인성, 자신감, 정의, 대범함, 솔직성, 기타의 10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 소신, 진취성, 자기희생 범주는 전체 항목 중 각 19.4 %, 18.4 %, 17.3 %로 10개의 범주들 중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1의 결과는 용기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바 있는 O'Byrne 등(2000), Rasmussen 등(2002), Rate 등(2007)의 선행연구와 비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Rate 등(2007)은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분석 결과와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본 연구와 비교가 불가능하였고, 본 연구와 자료수집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수집된 자료의 양도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원자료를 공개한 O'Byrne 등(2000)과 Rasmussen 등(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O'Byrne 등(2000)은 미국 대학생, Rasmussen 등(2002)은 그리스, 인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기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

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내용분석 방식과 달리 주제추출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들의 원자료들을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류한 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다. 또한 이들이 수집한 자료의 양이 본 연구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응비교는 불가능하고 범주차원에서 비교해 본다.

O'Byrne 등(2000), Rasmussen 등(2002)에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 나라 대학생들의 반응들을 각각 분류해 본 결과, 미국은 강인성, 소신, 진취성, 자기희생 범주의 차례로 분류되었고, 그리스는 강인성, 소신, 진취성 범주의 차례로 분류되었으며, 인도는 강인성, 소신, 고유성 범주의 차례로 분류되어, 강인성 범주가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많은 반응 빈도를 보였다. 강인성 범주는 주로 위협하고 위협적이고 어려운 일이나 도전에 직면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통제하고 극복하는 내용의 반응들을 포함한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강인성 범주는 4번 째로 많은 반응 빈도를 보이는 범주이었고,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대로 행동하는 소신 범주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Rasmussen(2002)이 인도와 그리스 학생들(인도 14명, 그리스 1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용기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비교적 연구에서, 인도 대학생들은 특징적으로 '자기 자신 직면하기', '고유한(unique) 사람 되기',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되기' 등을 용기라고 반응하여 영적인 고유성의 추구를 용기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 대학생들은 특징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위협을 통제하는 능력',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인 태도로 상황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 등을 용기라고 반응하여 사회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도 용기라고 보았다. Rasmussen(2002)의 이러한 인도 대학생 결과를 본 연구와 대비시켜보았을 때, 남과 다른 개성추구의 내용을 갖는 반응들은 본 연구 항목에 있었으나 인도 대학생들의 영적인 고유성의 추구와 상응하는 반응은 본 연구 항목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그리스 대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도 용기라고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상한 목적을 위한 행동을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Rasmussen(2002)연구의 사례수가 적어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라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선정한 대표 항목들을 9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변환하여 다른 표본에서 조사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용기는 '진솔성-꿋꿋함', '이타성-위험감수', '소신-당당함', '도전정신'의 4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요인 개수는 Woodard(2004)에서 나타난 4개와 일치하나, 요인의 의미는 Rate 등(2007)에서 나타난 3요인 구조의 결과와 더 유사하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연구대상자들이 산출한 자연적인 반응항목으로 문항을 선정하고 이 문항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용기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응답자에게 물었던 Rate 등(2007)과 달리, Woodard(2004)는 자신이 정의한 용기의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을 심리학자들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용기행동 문항들을 선별하고 이 문항들에 응답자가 얼마나 기꺼이 행할지 물었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한 Rate 등(2007)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4번째 요인인 ‘도전정신’은 Rate 등(2007)의 연구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요인이다. 이 요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정신이 강하다’, ‘남들이 시도해 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 한다’,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 한다’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Rate 등(2007)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도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럼에도 한국자료에서만 도전이 용기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이민과 건국 및 서부 시대를 거치면서 오래전부터 독립과 도전을 바탕으로 한 개척정신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는 벤처정신과 창업교육이 일상화되어 있고(이상문, 장대성, 2004), 새로운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실리콘 밸리가 생겨난 것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도전정신이 바람직한 가치로 지향되기는 하지만, 아직 도전행동은 일상에서 쉽게 나타나는 행동양식은 아닌 것 같다. 이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로 인한 공무원, 교사, 의사 직업선호 현상의 만연에서 예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과 같이 뛰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기를 요구받는 우리나라의 관계 중심적

문화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게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ate 등(2007)에는 없는 ‘도전정신’이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첫 번째 요인은 ‘진솔성-꿋꿋함’인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솔직히 말한다’와 같이 진솔성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산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산다’와 같이 꿋꿋함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이 때 꿋꿋함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Rate 등(2007)에서 나타난 ‘정서와 외부환경에 대한 자기 초점적 반응’ 요인의 문항들과 유사하지만, 진솔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Rate 등(2007)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본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자료에서만 진솔성에 해당하는 요인문항들이 나타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한국의 체면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Hsu(1944)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억압적(repressive) 사회화 과정을 발달시키는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억제적(suppressive) 사회화 과정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억압적 사회화 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인 행동기준에 주목하도록 하나, 억제적 사회화 과정은 행동에 대한 외적 평가 또는 타인의 평가에 주목하도록 하여 체면 의식을 발달시키게 된다. 체면 의식이 발달한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화권보다 자신의 역할 수행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역할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초래될 수 있는 수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을 은폐하려는 외부적 귀인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김주엽, 2003). 특히 연장자의 권위와 체면을 중요시하기에 나이 어린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은경(2005)의 연구에서 한국 남자들은 사과 발언을 미국인보다 적게 했으며, 대상자와의 친밀감이 덜한 경우와 자신보다 상위의 대상에게 직접적 사과 발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미안한 상황에서 사과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과실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사과 발언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같은 진솔성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케 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본 연구는 용기의 구성개념에 대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두려움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두려움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용기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두려움을 용기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견해(Norton & Weiss, 2009; Rachman, 1978; Schmidt & Koselka, 2000)와는 달리, 용기란 두려움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Shelp, 1984; Woodard & Pury,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고상한 목적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용기는 고상한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이것은 Shelp(1984), Woodard와 Pury(2007)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기에 대한 행동-특성 쟁점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들은 용기를 특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기를 다소 가변적일 수 있는 행동경향성으로 본 Woodard와 Pury(2007)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에 가까운 성격 강점으로 본 Peterson 등(2006) 및 Shelp(1984)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실제적 시사점은 척도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과 요인분석 및 쟁점조사 결과는 동일한 구성개념이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인은 선행연구가 수행된 국가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용기의 구성개념과는 다른 독특한 측면의 구성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향후 용기 측정도구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표본의 연령층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Szagun(1992)은 5~6세, 8~9세, 11~12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용기의 개념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용기를 신체적인 위협과 관련시켜 이해한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용기를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주로 20대였고 이들에게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연령층에서도 반복될지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표본의 사례수가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적절성 평가에서 286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이 때 사용된 항목의 개수는 211개 이었다. 요인구조의 추출을 위해서 관찰수효와 문항수효의 비율이 최소한 5배~10배는 되어야 하는데(양수정, 이순묵, 1999) 본 연구에

서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었다. 따라서 표본의 수를 늘려서 요인구조에 대한 반복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타인과 자신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암묵이론이 각각 다르다고 하므로(양수정, 이순묵, 1999),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용기의 암묵이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주엽 (2003). 체면에 대한 한 연구: 실증 연구를 위한 준비. *인적자원개발연구*, 5(2), 63-81.
- 박은경 (2005). 한국인과 미국인의 사과발언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은현, 한순미, 하주현, 이정규, 류형선, 한윤영, 박병기 (2008).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적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67-390.
- 양수정, 이순묵 (1999). 지적능력의 암묵이론적 구조와 기능: 학업지능과 실용지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7-47.
- 이상문, 장대성 (2004). 벤처창업 교육과 창업 정신 향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경영교육연구*, 7(1), 7-25.
- 조남국 (1997). 공정한 문화비교를 위한 방법적 대안: 다차원적 심리구조 자체를 비교 단위로 하는 분석.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 Asarian, R. D. (1981). The psychology of courage: A human scientific investig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 2023B. (University Microfilm No. 8121943)
- Barnes, M. L., & Sternberg, R. J.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love and its predi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In R. J. Sternberg & M. Hojjat (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pp.79-101). New York: Guilford Press.
- Cox, D., Hallam, R., O'Conner, K., & Rachman, S. J. (1983). An experimental analysis of fearlessness and courag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4, 107-117.
- Dweck, C. S., Chiu, C., & Hong,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 267-285.
- Fehr, B. (1988). Prototyp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love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4), 557-579.
- Finfgeld, D. L. (1995). Becoming and being courageous in the chronically ill elderly.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6, 1-11.
- Haase, J. E. (1985). The components of courage in chronically ill adolesc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 64-80.
- Haase, J. E. (1987). Components of courage in chronically ill adolesc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2), 64-80.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Karger.
- Hsu, F. L. K. (1944). Suppression versus repression: A limited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four cultures. *Psychiatry*, 7, 223-242.
- Lopez, S. J. (2007). Profiling courage: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courage. *The Journal of*

- Positive Psychology, 2(2), 79
- MacMillan, T., & Rachman, S. J. (1987). Fearlessness and courage in paratroop veterans of the Falkland war.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8, 375-38.
- Muris, P. (2009). Fear and courage in children: Two sides of the same coi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 486-490.
- Muris, P., Mayer, B., & Schubert, T. (2010). You might belong in gryffindor: Children's courage and its relationships to anxiety symptom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sex rol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1, 204-213.
- Norton, P. J., & Weiss B. J. (2009). The role of courage on behavioral approach in a fear-eliciting situation: A proof-of-concept pilot stud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212-217.
- O'Byrne, K. K., Lopez, S. J., & Peterson, S. (2000). *Building a theory of courage: A precursor to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10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O'Connor, K., Hallam, R., & Rachman, S. J. (1985). Fearlessness and courage: A replication experi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6, 187-197.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S. J. (1978). *Fear and courage*.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mpany.
- Rachman, S. J. (1984). Fear and courage. *Behavior Therapy*, 15, 109-120.
- Rate, C. R., Clarke, J. A., Lindsay, D. R., & Sternberg, R. J. (2007). Implicit theories of courag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2), 80-98.
- Rasmussen, H. R., O'Byrne, K. K., Lopez, S. L., & Peterson, S. (2002). *Courage across cultur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1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Schmidt, N. B., & Koselka, M. (2000). Gender differences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Evaluating cognitive mediation of phobic avoida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5), 531-548.
- Shelp, E. E. (1984). Courage: A neglected virtue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8, 351-360.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Stern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 Szagun, G. (1992). Age-related chang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courag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4), 405-420.
- Walker, L. J., & Hennig, K. H. (2004). Differing conceptions of moral exemplarity: Just, brave and ca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629-647.
- Woodard, C. R. (2004). Hardiness and the concept of courage.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6, 173-185.

Woodard, C. R., & Pury, C. L. S. (2007). The construct of courage: categorization and measurement.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9, 135-147.

1차원고접수 : 2011. 3. 30.

수정원고접수 : 2011. 6. 9.

최종게재결정 : 2011. 6. 11.

## The exploration of courage construct: The implicit theor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Yoon Hee Heo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 far there is no consent definition of courage because of lack of empirical studies about its constru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struct of courage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ir implicit theory. In Study 1, we compiled responses from a free-listing task about characteristics of a courageous person for 239 university students. We compiled 3,843 items and classified them into 10 categories of 437 items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In study 2, we asked 286 university students to complete a questionnaire including 437 items made to 9 point Likert style scale and analyzed 211 items over 6 point of the scale b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4 factors, truthfulness-firmness, altruism-taking risk, one's conviction-being dignified, and challenge. Additionally in study 2, we investigated students' thoughts about three issues relevant to the construct of courage using vignettes developed by us. Those three issues were as follow. Does courage include fear? Is a nobility indispensable in courage? Is courage behavior or trait?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students thought courage included fear or did not, included a nobility, and courage is not a situational behavior but a dispositional trait. These results were not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ose in western studies and we discussed the reason of the differences in terms of cultural perspective.

*Key words : courage, implicit theory, construct of courage*